



"아이와 북은 칠수록 소리 난다"

뜻: 아이를 때리거나 혼내면 더 크게 울고 떼를 쓰는 것처럼, 억지로 다그치기보다 잘 타이르고 달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아이 · 방법 · 훈육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아	이	와	↓	북	은						
칠	수	록	↓	소	리	↓	난	다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아	이	와	↓	북	은						
칠	수	록	↓	소	리	↓	난	다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〇 〇 〇] [ㅂ 〇] [* ㅅ ㄱ] [ㅅ ㄱ] [ㄴ ㄷ]

웹에서 보기

